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 이사금(尼師今)에서 마립간(麻立干) 으로

미상 ~ 402년(내물마립간 47)



경주 내물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 ?~402)은 신라 제17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356~402년이다. 그는 제13대 왕 미추(味鄒)에 이어 김씨로는 두 번째로 왕위로 올랐으며, 그 이후로 김씨만 왕이 되었고, 왕의 호칭도 이사금(尼師今)에서 마립간(麻立干)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라가 왕권이 강화되면서 초기 독자적인 지역 집단인 6부의 연합체적 성격을 벗어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는 재위 중 가야(加耶)와 왜(倭)의 지속적 침략을 받고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문에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강한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

2 가계와 생애

내물마립간은 356년~402년 재위한 신라 제17대 왕이다. ‘내(奈)’는 ‘나’로도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왕의 이름을 나밀(那密)로 표기한 사례도 있어, ‘내물’ 보다는 ‘나물’로 부르는 것이 당시 발음에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또 누한(樓寒)으로 기재한 것도 있다. [관련사료](#)

그는 김씨로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의 아버지 구도갈문왕(仇道葛文王)의 손자이며, 각간(角干) 말구(末仇)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휴례부인 김씨(休禮夫人 金氏)로 전한다. 왕비는 미추이사금의 딸 보반부인(保反夫人)이어서, 그는 미추이사금의 조카이자 사위가 된다. 356년 4월 전왕인 흘해이사금(訖解尼師今)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왕위에 올랐는데, [관련사료](#) 미추이사금의 근친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인과의 사이에서 눌지마립간(訥祗麻立干), 복호(卜好), 미사흔(未斯欣) 등의 자식을 두었으며, 46년간 왕위에 있다가 402년(내물마립간 47) 2월 사망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왕력(王曆)」에 그의 무덤은 지금의 국보 제31호 경주 첨성대(慶州 瞻星臺)를 의미하는 점성대(占星臺) 서남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이에 입각하여 현재 사적 제188호 경주 내물왕릉(慶州 奈勿王陵)이 그의 무덤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 왕릉이 대형 무덤인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인데 비해, 현재의 경주 내물왕릉은 규모도 작고 후대 양식인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墳]으로 추정되어, 실제 내물왕릉이